# 전남도새마을회 평화·공동체정신 다짐

## 전남도청서 지도자대회
## 유공자 훈포장 43명 수상
## 김 지사 "전남 도약 앞장 기대"

전남도새마을회가 29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2 전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열어 생명·평화·공동체정신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전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곽대훈 새마을회중앙회장, 이귀남 전남도새마을회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새마을지도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새마을회의 활동을 돌이켜보는 '2022 보람의 현장' 영상으로 시작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 운동, 탄소중립을 위한 나무심기, 취약계층 나눔과 봉사활동 등 생명·평화·공동체정신을 실천하며 땀흘리는 생생한 현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새마을지도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했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추영금 진도군새마을부녀회장이 새마을훈장 협동장을 수상하는 등 새마을포장 5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7명, 도지사표창 4명 등 총 43명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추영금 회장은 2005년부터 17년간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했다.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 시 실종자 가족과 재난구호 봉사단에 직접 만든 죽과 간식을 전달하고, 야간 구호 활동을 위해 밤을 새워 봉사했다.

또 매년 일일찻집을 운영해 그 수익금으로 독거노인 및 소년 소녀 가장을 도왔으며, 인재육성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군민 한마음 나눔장터 참여, 사랑버무린 김치 나누기, 어르신 떡국 나눔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정신을 발휘해 더불어 사는 사회 기풍 조성에 기여했다.

새마을 노래 제창과 함께 대회 마지막을 장식한 '2023년 비전 다짐' 홀로그램 공연은 '세계로 미래로 다시 뛰는 새마을 운동'을 역동적으로 그린 그래픽과 3명의 무용수가 어우러져 '탄소중립 문화조성', '상생과 통합', '공동체 의식회복'으로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전남새마을회의 미래를 표현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된 것은 새마을회가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덕분"이라며 "어렵던 시절 새마을운동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됐듯이, '전남 대도약 시대'를 여는데도 새마을회가 큰 몫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새마을회는 1980년 설립돼 22개 시·군 새마을회에서 1만8000여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6만7700여 회원이 지역경제 살리기, 농어촌 활력화, 환경보전,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4개 소비자단체 '생활 속 물 절약 캠페인'** 가뭄에 따른 물 부족 극복을 위해 전남도내 한국소비자연맹 전남목포지회, 한국부인회 전남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여수YMCA 등 4개 소비자단체가 12월 31일까지 5주간 '생활 속 물 절약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 24일 영광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부인회 전남도지부, 시·군 지회 임원단과 회원 80명은 '가정 내 계량기 수압 낮추기, 빨래 모아서 하기' 등 생활 속 물 절약 10대 수칙 실천 선언을 했다. 〈전남도 제공〉

# 언제 어디서나 책읽기 가능한 전자도서관

## 전남도립도서관 서비스 시작
## 이용 편의 독서문화 확산 기대

전남도립도서관이 책 읽는 문화 확산과 도서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독서 가능한 전자도서관을 구축해 지난 2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에 구축한 전자도서관은 비대면으로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전자 자료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회원증을 만든 후 이용이 가능했으나 신규 개관하는 전자도서관은 행정안전부 비대면 거주 확인 서비스를 도입해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존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등 자료별로 구분됐던 메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신간 도서는 물론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선택해 추천 도서와 베스트 도서를 볼 수 있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간략하고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축했다.

이밖에 공급업체에 따라 전자책 뷰어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웹뷰어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개별뷰어 설치 없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등 여러 기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전자책 제공을 위해 공급업체를 다각화해 도서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회필 전남도립도서관장은 "비대면 도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서비스 이용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전자도서관을 개관했다"며 "도민이 독서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녹색에너지硏, 에너지 기업지원 성과 교류회

## 우수성과 공유 비즈니스 모델 발굴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목포에서 전남 에너지산업 우수성과 공유 및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전남 에너지신산업 기업지원 통합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사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남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류회에서는 녹색에너지연구원 기업지원실 및 일자리지원센터 사업별 성과보고, 2023년도 지원사업 안내, 글로벌 RE100 동향 및 국내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전남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가운대 특고압 개폐기 및 차단기 생산기업인 ㈜스위코진광, 인공지능 기반 항공 열화상검사 선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 ㈜메타파스 등이 전남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지난 1년간 수행한 전남 에너지신산업 기업지원사업의 우수성과 공유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의 계기가 마련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남 에너지신산업 우수성과가 지역산업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해풍1호' 기술이전 계약

## 우량종자 보급 어민소득 기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종묘 생산업체 5곳과 도유품종 보호권 '해풍1호' 통상실시(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통상 실시로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대량 배양 부담에서 벗어나 신품종 개발에 전념하게 됐다. 통상실시 업체의 우량종자 확대 보급으로 어가 소득증대도 기대된다.

김 종자산업의 안정화와 전문화, 규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김 양식 생태계 조성 노력으로 통상실시 업체는 2021년(3개소)보다 2개소가 늘었다.

통상실시 대상인 '해풍1호'는 자손 번식력이 뛰어나고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2배 이상 많아 어업인으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전남도 대표 품종이다. '해풍1호'는 일명 '슈퍼김'으로 불린다. 2011년 개발된 다수확 품종으로 해남·진도·고흥에서 주로 양식이 이뤄진다.

지난해 수산 분야 첫 통상실시 결과 종자 배양업체 28개소에 2211g을 분양해 44억22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유리사상체(씨앗) 가격을 g당 2만5000원에서 20% 절감된 g당 2만원에 판매함으로써 김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농업박물관 '연 날리기' 관광 콘텐츠화

## 12월 3일 영산호관광지서 경연

전남도농업박물관은 오는 12월 3일 영산호관광지 농업테마공원에서 전통민속놀이 활성화를 위한 전국 민속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통 민속놀이에 대한 이해와 계승 발전은 물론 연날리기를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날리기 대회는 식전행사, 개막행사, 본 행사, 부대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식전행사에서 전국의 전통 연 연구가를 초청해 줄연과 단독 연 등 10여 종의 창작 연을 선보인다.

이어 개막식에서는 올해의 나쁜 액운을 보내고 다가올 새해의 복을 맞이하는 의미로 '송액영복'이라 쓴 액막이 연 날리기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문구를 연에 달아 날리는 행사를 진행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기원한다.

연날리기 경연은 일반부 연줄 끊기 대회와 학생부 높이 날리기 대회로 치러진다. 일반부 우승자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 학생부는 3위까지 도지사 표창과 상품이 수여된다.

부대행사로 '이순신 신호 연'을 비롯한 전통 연, '호남 연' 등 100여 점의 연을 전시하고 초등학생 대상 연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해 직접 연을 만들어 날려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화지점